금봉 스님은?



30년 수레끌며 범륜사 불사

통일원력 '평화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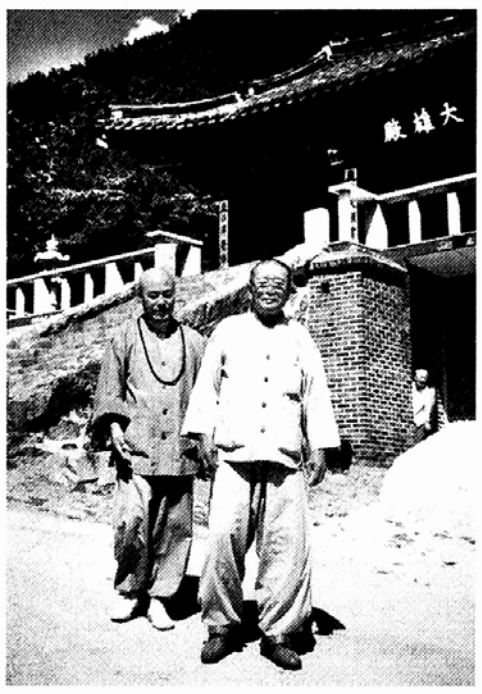
태고종 원로인 금봉스님은 1920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나 1930년 서울 북한산 진관사에서 월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1938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동국강원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1954년 서울 법륜사 주지, 1960년 서울 백련사 주지, 1965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하고 1998년 태고종 승정에 추대됐다.

스님은 은사인 서명당 월현스님이 92세까지 진관사에서 평생 울력불사를 하며 공부를 시켜준 공덕을 갚기 위해 1971년부터 파주 감악산 폐사지에 들어가 현재의 범륜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30년전부터 범륜사에 주석하며 한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손수 수레를 끌면서 불사를 해왔다. 그래서 주위의 스님과 신도들은 스님을 이르러 '일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평생 일군처럼 사시는 큰스님'으로 존경하고 있다.

사찰 창건 후 스님은 비구니교육에 뜻을 두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이었던 태고종 전 종정 보성스님과 전 태고종 총무원장 운제스님을 모시고 태고종 비구니강원을 설립, 선암사로 강원을 옮기기 전까지 직접 운영했었다. 범륜사에서 배출된 비구니 스님만도 300여명에 이른다.

또 스님은 올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경내 200여평에 평화통일 소공원을 조성해 감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남북통일에의 원력을 일깨워주고 있다.



◇금봉 스님이 시자스님과 함께 범륜사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어요. 그러다보니 불만이나 불안감, 힘들다는 망상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일하는 자체가 내 생활이 되었고 성취감도 컸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육조 혜능스님이 여덟 달 동안 찧은 방아가 단 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닌 방아와 찧는 멍어리를 통해 자신과 우주가 하나라는 가르침을 일깨웠다는 내용이 생각났다.

스님은 말을 하시는 중에도 돌을 옮기고 흙을 치우는 등 일에 매진했다. 그래서 경내를 한바퀴 돌아본 뒤 스님의 점심공양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법을 청했다.

"마음달이 홀로 뚜렷하니 빛이 만 가지 모습을 삼켰네. 빛은 경계를 비춤이 아니요 경계 또한 있음이 아니니 빛과 경계 모두 사라지면 다시 이 물건 무엇인가."

'일하는 큰스님'으로 통해

스님이 문득 반산 보적선사의 선시를 들려주신다.

"중생들은 꼭 절에 가야 수행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야 공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처처가 법당이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모든게 이뤄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활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고 생활이 곧 수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바로 보도록'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막막해요. 중생들이 오는 길도 가는 길도 모르니 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본래 주인공인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 헛것이예요."

스님은 승속을 불문하고 참 불자는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따르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다.

"부처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불자들이 〈반야심경〉은 누구나 외우잖아요. 〈반야심경〉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고, 편협되지 않으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공(空) 즉 자유를 찾게 해준단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입으로만 부처님 법을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인과의 진리 모르고 눈앞 이익 얽매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스님은 유점사 강원에서 당시 월정사 한암스님, 개운사 한영스님과 함께 조선 3대 강백이었던 일우스님께 배운 공부법을 소개했다.

"일우스님은 참선을 집중적으로 시키지 않고 매일 조석 예불 후 30분씩만 참선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진하도록 하셨지요. 생활 속에서 화두를 잡지 못하면 부처님께 원을 세우고 법당으로 가 열심히 절을 하게 하셨지요. 관세음보살."

금봉 스님은 말끝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그 연유를 묻자 "30년간 불사를 해오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했어요. 이제는 관세음보살 염불이 입에 붙어서 꿈에서도 염송할 정도가 됐지요. 염불은 불교신행에 들어가는 기초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 몸으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요.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세상 사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것을 설법하시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권하고 계시지요. 아무런 형식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입과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되니, 복잡한 교리체계를 떠나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니 만큼 근기가 낮은 현대인들에 적합한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자상하게 설명해주신 스님은 결국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정진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총명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없어 깨달음의 성취가 어렵다며 참선 염불 독경 등 수행을 자신의 근기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고 하신다.

감악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과 자주 얘기를 나눈다는 스님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 불교를 믿는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천만명이라 하는데 사실상 불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긴데 간혹 절에 몇 년 다녔다는 불자들도 공부는 하지 않고 불고가 어렵다고만 해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부비나야경〉에 나오는 바보 주리반특가 얘기 알지요. 부처님 제자 중 주리반특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분은 무엇을 가르쳐주어도 외우지 못했어요.

말끝마다 '관세음보살' 염송

대중들이 주리반특가는 수행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 이구동성으로 말했지요. 부처님은 주리반특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듯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닥을 걸레로 밀며 '마음을 닦자' 한마디만 외워라. 주리반특가는 신이 나서 매일 이 구절을 입으로 외우면서 청소를 하였고 사문들의 신발까지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리반특가는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준 '마음을 닦으라'는 화두가 마음속에 있는 때(업)를 닦아 없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문들도 신발까지 닦아주는 주리반특가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지요. 주리반특가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 16나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아무리 경전에 박식하더라도 이를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남의 양의 수나 세는, 평생 가난한 목동의 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인과를 모르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하러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 성큼 걸어가신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목초 스님

신령한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 그 계룡산에 정말 괴짜 스님이 한 분 계셨다. 그 스님이 목초 스님이다. 스님은 '심우정사'라는 토굴에서 정진중이었다. 학인의 눈에는 그냥 땡초(?)처럼 보일 뿐이었는데 어른 스님들은 목초 스님만 오면 아주 각별히 대하셨다. 목초 스님은 쌀이 떨어지면 동학사 마루에 빈 쌀자루를 던져놓고 훌쩍 마을로 내려가 버린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쌀자루를 가득 채워놓는다. 해질 무렵 스님이 나타나 자루를 들고 올라가면 한 보름 동안은 뵐 수가 없다.

학인들 사이에선 그가 도인이라는 둥, 지금은 몰골이 저렇지만 예전엔 아주 눈 푸른 납자였다는 둥, 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둥, 저렇게 한 번 들어가면 무문관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장좌불와를 한다는 둥, 정말 말들이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초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날 우리들 중 몇은 호기심이 너무 많은 탓에 그 토굴에 가서 그가 도인인가 아닌지 알아보기로 했다. 토굴에 도착했을 땐 주변이 생각보다 너무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놀랐다. 방문 앞에서 목초 스님을 부르자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햇살 때문에 눈살을 잔뜩 찌푸린 스님이 왜

계룡산서 만난 괴짜스님

'머리 불붙은듯' 수행 깨우쳐

왔느냐고 묻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었다. 가라는 뜻 같았다. 내가 혹시나 싶어 갖고온 라면 두 봉지를 꺼내 흔들자 스님의 입가에 언뜻 미소가 스치더니 들어오란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스님은 벽장에서 과자랑 사탕을 꺼내 먹으라고 우리 쪽으로 밀어놓고는 사탕을 오드득 오드득 깨물어 먹고 있었다. 라면을 먹다 벌떡 일어나더니 부처님을 홱 돌려놓고는 벽장 속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말없이 잡수셨다. 아니, 곳곳이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건만 방안에 부처님을 돌려놓고 술마신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우리 생각을 읽었다는 듯 "휴식중!" 이란다. 저 분아 마시는 술은 불법의 진리로 빚은 법주인가 한낱 곡차인가를 놓고 우리들은 오랫동안 옥신각신 했다. 법주냐, 곡차냐에 따라 그가 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 나는 것처럼.

그날 계단 앞에서 벌겋게 취한 스님이 "여구두연(如求頭燃)! 여구두연!" 이라고 소리치셨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오직 불을 꺼야한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정진하라는 뜻이리라. 궁금증으로 무슨 대답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이들에게 우리는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가 도인이냐 아니냐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알려준 것으로 족했다.

봄이 될 때까지 스님은 내려오지 않았다. 강사스님께서 걱정이 되어 토굴로 학인을 보냈다. 그 학인의 말이 신발은 있는데 대답이 없어 그냥 내려왔다고 했다. 그 학인은 창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목초 스님은 면벽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산수유가 뽀송뽀송 피어나던 봄날, 내방 앞에 쌀자루가 있었다. 원주스님에게 말하고 쌀을 담으러 자루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편지였다.

'욱수좌, 지금 여구두연?' 뜨끔했다. 얼른 주머니에 넣고 산으로 올라갔다. 조용한 바위에 앉아 그 편지를 보고 또 봤다. 뜨거운 것이 불뚝 솟았다 가라앉았다 했다. 선방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서 목초 스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수처작주(隨處作主)!"하시는 게 아닌가. 난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어쩌면 저리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실까. 지난 번 방자하게스리 스님이 수행을 잘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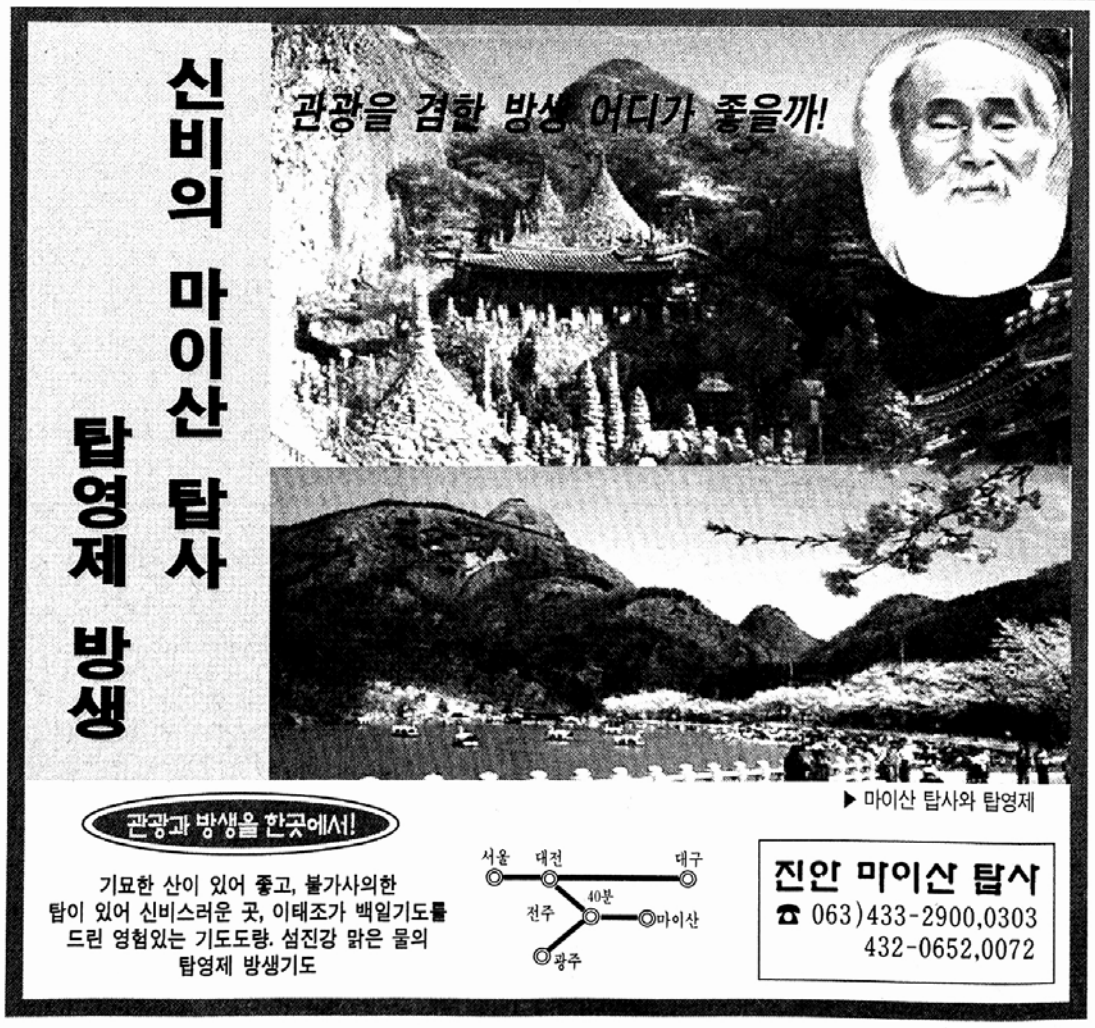
못하는지 저울질하러 나타난 어린 녀석들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 하셨을까 생각하니 죄송했다. 절에 들어가니 내일은 휴강이라며 울력복과 모자, 장갑을 챙겨서 아침 6시까지 법당 앞으로 모이라고 한다. 목초 스님이, 지난 겨울 어떤 시주자가 백만 원을 보시했는데 그걸로 몽땅 묘목을 사셔서는 꼭 학인들 손으로 심으라고 당부하고 가셨다고 했다.

나무를 심어라?!

천지의 기운이 어우러져 만물을 만들어 내고 만물은 길러진 뒤에야 완성되며 길러지지 않으면 병들게 된다. 이 때문에 선지식이 헤아려 이루고 도와서 바로잡는 소임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내겐 소나무 20여 묘목이 할당되었다. 호미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 스님의 깊은 뜻을 가슴에 담아 심고 잘 가꾸리라 약속했다.

목초 스님은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내려오시지 않았다. 그 해 겨울, 바랑을 지고 구름처럼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 후로 뵌 적이 없다. 그러나 계룡산 골짜기마다 자라고 있을 그 많은 나무들처럼 어디선가 '여구두연'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반야사 주지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 총 13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10월 24일 개강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의 기본원리
(법문, 설법, 강의, 강연, 연설등)
불교스피치 방법론 / 유모어와 불교 스피치
파워스피치 방법론 / 스피치 원고 작성법
불교 및 타종교 유명 성직자의 스피치 사례분석
스피치 실습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 접수중(2001년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20-709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http://www.mbudsc.org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일본大 핫트상품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갈라진 발에 좋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콤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효과가 없을시 100%환불 보장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02]455-6944, 02]453-5851